

## 현대중그룹·현대제철 사옥 판교 이전

## 한국조선해양 등 17개사 입주... 신사업·신기술 창출 박차

그룹 기술력 결집... 시너지 극대화  
국내 최고 에너지효율화시스템 적용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판교시대”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제철이 이달 사옥을 판교로 옮긴다. 삼성중공업과 두산에너지빌리티에 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제철까지 판교로 본사를 이전하며 IT성지였던 판교가 ‘중후장대’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글로벌연구개발센터(GRC)로 본사를 옮기고 있다. 현재 본사 이전이 한창으로 연내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GRC는 연면적 5만3000평,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다. 이곳에는 HD현대, 한국조선해양, 현대제뉴인, 현대오일뱅크 등 총 17개사가 입주한다. R&D



현대중공업그룹이 경기도 판교에 건립 중인 GRC 조감도.

와 엔지니어링 인력 등 5000여명 직원이 근무한다.

현대중공업그룹 기술경영의 핵심 역할을 할 GRC는 그룹 기술력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룹 제품 개발 기초 연구를 포함해 미래 신사업 신기술 확보에도 중추적인 역할

을 맡는다.

특히 국내 최고의 에너지효율화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건물 생애주기 관리도 가능하다. 직원들이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현대일렉트릭 등 일부 계열사가 입주를 시작했다”며 “연내 입주를 끝내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교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로 이전하는 중후장대 기업으로 국내 대표 철강사인 현대제철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제철은 이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크래프톤타워로 사옥을 이전한다. 현대제철은 현재 서울 곳곳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들을 분당 크래프톤타워로 통합한다.

크래프톤타워는 2018년 준공했다. ▲알파돔타워 ▲카카오판교아지트 ▲판교테크원 등과 함께 신분당선·경강선 환승역인 판교역 지상에 위치해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유동인구가 많다.

이에 앞서 판교에는 삼성중공업과 두산그룹도 자리잡았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 판교R&D센터를 짓고 본사를

이전했다.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부문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판교R&D센터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로 1500여명 인력을 수용 가능하다.

두산그룹은 지난 2020년 정자동에 27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설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 뿐만 아니라 (주)두산, 두산 밥캣, 두산큐백스 등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분당두산타워는 부지 면적 8943㎡, 연면적 12만8550㎡, 높이 119m의 지상 27층, 지하 7층 규모로 건설됐다. 사우스(South)와 노스(North) 2개 동으로 나뉘었고 상단부가 스카이라이프리로 연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판교는 서울과 가깝고, 지방에서도 접근하기 쉽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며 “인근에 포진한 IT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교에 기업 본사가 몰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화학, 바이오 원료 ‘ABS’ 제품 출시

(고기능성 플라스틱)

▶ 최초 ABS 분야 ISCC PLUS 인증 마텔 공급... 친환경 시장 공략 본격화

LG화학이 친환경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섰다.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 제품을 전량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ABS’는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 LG화학의 설명에 따르면 ABS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해 완구류뿐 아니라 가전, 자동차,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된다.

이번에 출시한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ISCC PLUS(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를 획득했다. ABS 분야에서 ISCC PLUS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을 판



LG화학의 엔지니어들이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을 들고 있다. /LG화학

매하는 것은 LG화학이 아시아 최초다. LG화학이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수행을 통해 탄소 감축 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존 생산된 ABS 보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 넷제로의 일환인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LG화학의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LETZero(렛제로)’를 적용

해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북미 최대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Mattel)사에 최근 처음으로 공급됐다. LG화학은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끌어갈 계획이다.

최근 ESG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제품에 친환경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기저귀 및 바디제출출시했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리모컨, 섯박스 등을 출시하여 탄소 중립 및 자원 선순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중심의 지속가능한 소재로 시장을 선도하고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한화에어로, ‘누리호’ 총괄 제작사업 수주

항우연 본계약... 2860억 규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으로부터 2860억원 규모의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고도화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본계약까지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함께 내년부터 2027년까지 누리호 3기를 제작하고 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누리호 고도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873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우연과 민간기업 주도로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수송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체계종합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우연이 보유한 누리호 체계종합 기술 및 발사운용 노하우를 순차적으로 전수받게 된다.

내년 예정된 3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4차례 걸쳐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검증, 지상 관측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향후에는 민간의 인공위성, 우주선,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수송’ 사업의 상업화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그룹의 우주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허브’를 출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주탐사 및 자원확보까지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20년 영국 위성 통신 안테나 기업 페이저(현 한화페이저)를 인수하고, 미국 위성 통신안테나 기업 카이메타 지분투자에 이어 지난해 세계 최초의 우주인터넷 기업인 원웹의 지분(약 9%)을 확보하는 등 우주 통신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개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출하고 있는 세트랙아이는 위성 데이터 서비스 사업에 이미 진출했다. 한화디펜스와 합병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3월에 한화방산(구(주)한화방산부문)까지 합병하면서 발사체 역량을 더욱 다각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올해 수출액 6900억弗... 삼성·SK 등 ‘K-반도체’ 선전

무협 ‘제59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  
기업·유공자 격려... 산업훈장 등 포상

국내 수출 금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또다시 ‘수출의 탑’을 새로 쌓아올린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수출 금액은 6900억달러로 지난해(6444억달러)를 넘어선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제59회 무역의 날’을 열고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 기업과 유공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주재

는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이다.

우선 삼성전자가 또다시 1200억달러 수출의탑을 쌓아올리며 지난해 1100억 불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숫자다.

SK하이닉스도 300억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며 K-반도체 산업을 주도해온 공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에스디바이오센서, 한화솔루션 등 다양한 첨단 분야 기업들이 20억불탑을 수상하면서 미래 수출 역군 기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07개나 많은 1780개사가 수출의 탑 수상 대상에 오르며 꾸준히 늘어나는 수출 성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수출 유공자 부문에는 정경오 회성피엠텍대표이사, 최우각대성하이텍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이장열 서울전선(주)대표이사, 김선규금호폴리캠(주)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대상자다. 597명이 세계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할 전망이며, 무역협회장 표창도 80명이 받는다.

/김재용기자 juk@

삼성전자 더 프레임

## 키무스튜디오 작품 전시

삼성전자 더 프레임이 특별한 디자인자들의 색다른 작품을 담는다.

삼성전자는 삼성아트스토어에 키무스튜디오 작품들까지 선보이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더 프레임은 액자형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로, 아트스토어를 통해 전세계 주요 박물관 소장작을 비롯해 전세계 50여개 파트너와 2000점 이상 다양한 작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키무스튜디오는 발달장애를 지닌 디



키무스튜디오 작품 이미지

/삼성전자

자이너 20여명과 비장애인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는 스튜디오다. 색다른 감성을 지닌 작품들로 순수하고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재용 기자